

PVC · PE 수익성 “기대해도 좋다”

미래에셋증권, 석유화학 시황 강세 ... 한화석유화학 · LG석유화학 추천

최근 석유화학제품의 가격이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맞물려 강세를 보임에 따라 한화석유화학, LG석유화학, LG화학 등 관련기업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

1월27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최근의 석유화학 시황의 강세는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강세, 그리고 수요증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해 보기 드문 강세장을 형성하고 있다.

더욱이 2003년 중국의 합성수지 수입 감소로 인한 재고 소진과 3-5월 계절적 성수기를 앞둔 시점에서 아시아 지역의 정기보수까지 예정돼 있어 2004년 상반기 석유화학제품의 가격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전반적인 석유화학제품 가격이 과거 호황기였던 1999-2000년 수준에 근접했고 수익성도 크게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합성수지 중에서는 PVC와 PE가 가격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합성원료인 EG 역시 타이트한 수급 상황에 힘입어 가격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됐다.

일부 해외기업의 생산차질로 인한 나프타 가격급등은 최근의 긍정적인 수급을 고려할 때 일시적인 영향에 그칠 전망이다.

미래에셋증권 박영훈 선임연구원은 “2004년 수급 여건이 가장 좋은 PVC와 적어도 상반기까지 가격강세가 지속될 PE 생산기업의 주가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가격전가가 용이한 NCC 가동 석유화학기업들의 수익성도 호조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래에셋증권은 해당 종목에 대한 매수를 추천하며, 6개월 목표주가로 한화석유화학 1만6000원, LG석유화학 3만5000원, LG화학 6만6000을 각각 제시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4/01/28>